중앙일보 신문심의위원실의 현황

중앙일보 신문심의위원실

I. 들어가는 말

중앙일보 신문심의위원실(이하 심의실)이 정식으로 발족돼 업무를 시작한 것은 1989 년 8 월 1 일부터이다. 이날 심의실은 「심의업무를 시작하면서」란 발행취지서를 통해 심의실 발족의 기본목적을 「자체평가를 통한 자기규제의 기능」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심의실은 10 여년 전에도 있었고 한때는 논설위원실이 심의업무를 겸하기도 했다. 논설위원들이 돌아가며 그날의 지면을 종합검토한 뒤 심의서를 작성해 편집국·회사 간부진에 배포했었다. 그러나 그나마 얼마 후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중앙일보 신문심의위원실이 새로 발족되어 본격적인 심의업무가 개시되기에 이른 것은 치열한 신문경쟁시대를 맞아 독자에게 최상의 정보를 전달하고 신문도 상품인 이상 끊임없는 품질개선이 필요하다는 당위성과 현실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다. 다른 상품은 모두 품질개선을 하고 상품검사를 제도화하고 있는데 유독신문만이 예외일 수 없을 뿐더러 신문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활자매체가 미치는 영향과 사명이 막중한 데 비해 아무런 자체 통제 없이 신문을 발행한다는 것이 무책임하다는 자기반성도 있었다. 더구나 그동안 독자의 수준이 엄청나게 향상됐고 기사에 대한 항의와 이의제기도 부적 늘어 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점과 언론이 지녀야 할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심의기능의 활성화가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따라 심의실 기능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

Ⅱ. 구성

발족 당시는 실장, 심의위원(논설위원 겸임)2 명, 소장기자 2 명 등 모두 5 명으로 구성됐다. 인적구성은 심의업무의 객관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의해야 했다. 모든 평가가 그렇듯이 신문심의도 사물을 보는 관점, 사상, 나이, 경험 등에 따라 제각기 다를 수 있다. 이를 극복하고 가능한 한 보편성과 객관성을 유지해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심의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채택한 것이 「장중소의 혼합원리」다 경험이 많은 기자로부터 젊은기자까지 골고루 참여해 최소한 연령에 따른 시각차를 보완하자는 의도였다. 이 원칙에 따라 심의실은 기자경력 20 년 이상인 국·부국장 이상 간부와 중견차장기자, 경력 3 년 이하의 소장기자로 구성됐다. 특히 신문제작에 대해 아직 경험이 부족한 소장기자들을 심의업무에 참여시킨 것은 우리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감안해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이들의 새로운 생각과 견해를 반영, 수렴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앞으로 중앙일보를 끌어갈 젊은 기자들에게는 신문제작 전반에 대한 산교육장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다. 특정인이 장기간 심의를 맡고 심의업무가 일상화되다 보면 참신한 생각보다는 타성에 따지는 등 역작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따라 심의실 근무기한을

한시적으로 정했다 심의위원은 1~2 년 기간을 주기로 정기순환보직을 제도화했다.
소장기자는 편집국기자 중에서 자의 또는 선발에 의해 6 개월단위로 순환근무하고 있다.
처음 5 명으로 출발했던 심의실은 그동안 심의업무의 증가로 국장급 위원 1 명을 보강, 모두 6 명으로 규모가 커졌다. 지금까지 논설위원겸 심의위원 1 명이 심의실 근무를 마치고 편집국으로 복귀하고 대신 사회부 중견차장 1 명이 심의위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소장기자순환은 3 번 있었다.

Ⅲ. 운영방안

심의실은 사장실 직속기구로 신문제작 전반에 대해 「내부 모니터」의 역할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앙일보 신문심의위원실 운영안)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첫째, 매일의 지면에 대한 심의평가와 의견제시 둘째, 기자직업윤리 및 전문지식 고양을 위한 조사 연구·계도·제안 셋째, 독자여론 조사 넷째, 중앙일보에 대한 독자들의 요구 ·불만사항을 수렴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면에 반영한다는 등 4 개항을 심의업무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물론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업무는 일일지면 심의이다. 심의실은 매일(월 ~금) 오후 중앙일보가 발행된 후 그날의 조·석간을 종합비교·분석해 평가한 뒤 심의서를 작성, 사내에 배포하고 있다.
심의실업무는 매일 아침 조간이 배달되면서부터 시작된다. 심의위원 1 명은 논설회의에, 1 명은 편집국 부장회의에 참석해 그날의 신문제작방향과 내용을 파악한다. 심의실에서도 매일 오전 9 시에 회의를 갖고 그날 조간과 편집국회의 중에서 거론된 뉴스거리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한다. 오전 10 시 30 분쯤에는 편집국에서 1 차 제작된 기사초고가 배달돼 이를 검색하고 있다.
오후에 중앙일보 1 판이 발행되면서부터 오후 3 시 심의회의시간까지는 각자 중앙을 비롯 4 개 석간을 읽는다. 광고까지 포함해 전체지면을 읽고 개별기사에서도 문장표현·편집·기사 비중의 적절한 배정여부 등 살살이 훑어 간다. 이때 발견된 오·탈자 등 간단한 시정사항은 물론 중대한 제작실수는 곧바로 편집국에 연락해 2 판부터 고치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다른 석간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중앙의 특종·낙종을 가려내고 같은 사안에 대한 보도내용을 검토한다.
오후 3 시부터 1 시간 가량 심의회의를 가진 뒤 그날 채택된 평가사항을 기초로 심의서를 제작한다. 심의회의는 심의실 전원합의제로 진행되며 심의서 제작에도 심의위원, 소장기자 모두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심의서 항목은 총평, 오늘의 우수기사, 오늘의 반성할 기사, 평가사항, 참고사항으로 나누어진다. 이중 평가사항은 또다시 주요심의내용, 잘된 기사, 미흡한 처리, 기타 등으로 세분된다.
심의는 단순평가에 그치지 않고 중요사안이나 기사내용에 대한 보충지식, 아이디어를 실어제작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심의서가 완성되면 대량 복사해 회사간부진과 중앙일보·경제편집국에 배포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은 일일심의 대신에 한주간의 지면을 총괄적으로 평가해 주간평가서 (주평)를 발행한다. 한주의 신문제작에서 나라만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며 「금주의 우수기사」를 선정한다. 주평에서는 국내신문뿐만 아니라 인터내서널 헤럴드 트러뷴, 아사히신문등 외국신문과 비교 ·분석해 세계의 흐름과 방향 등을 실어주고 외국신문지면에 나타난 외신처리의 우수한 점을 인용, 게재하기도 한다.
그밖에도 신문문장론 등을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싣고 있다. 이는 신문제작이 끊임 없는 재교육이 요구되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현실 여건상 그러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일선기자들에게 재교육의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일일심의 대신에 특정면을 집중 심의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한달분을 종합평가하는데 개별기사의 평가보다는 편집방향이나 흐름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 심의한다.
발족 초기 중앙일보 심의만을 했던 심의실 업무는 사내의 호응과 요청에 따라 현재는 중앙경제신문·미주판 (뉴욕·시카고·LA 판) 심의까지 확장됐다. 일일심의가 당연하겠지만 형편상 그러지 못하고 3 주에 1 번꼴로 번갈아가며 경제지 (1 주분), 미주판(1 달분)을 한꺼번에 하고 있다. 분량이 많아 목~토 3 일간 심의하며 이 기간에는 중앙일보 일일심의는 하지 않는다. 경제지 심의는 전문지의 특성상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부 경제전문가와 본사 경제담당논설위원 등의 자문도 받고 있다.

Ⅳ. 심의 방향

심의업무의 생명은 제작진이 얼마나 심의내용에 수긍하는가에 있다. 제작진이 심의내용에 공감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않는다면 심의는 하나마나 일 것이다. 이 때문에 공정하고 정확한 심의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사 심의실은 이 점에 특히 유의해 발족 당시 「심의지침」 규정을 명문화했는데 이중 「심의기준」 전문을 밝혀 이해를 돕고자 한다.

「심 의 기 준」

1. 중앙일보사시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실천요강을 토대로 중간층 독자의 입장에서 건전한 상식에 준거해 타지와 비교하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2. 보도와 편집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이론을 실상대로 균형 있게 반영하되 사태의 근원에 파고드는 심층취재 분석과 미래지향적 방향제시에 역점을 두어 신속, 정확, 공정, 윤리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개별사항의 구체적인 심의평가기준은 독자조사, 모니터보고 등을 통해서 나타난 다수독자의 가치기준과 정서 그리고 평가위원회 토의나 사내토론을 통해 집약된 견해를 종합해 귀납적으로 설정해 나가는 방식을 채택한다.
4. 특히 가치관의 혼미상태에서 신문의 계도적 기능이 어느 때보다 발휘되어야 할 필요성에 비춰 인간성의 고양, 사회통합, 민족문화의 발양, 만족적 정체성의 확립을 위한 의식적인 노력에 특별히 관심을 두어 평가한다.

이상의 「심의기준」을 기본정신으로 심의는 철저히 「독자의 입장」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지난해 7월 심의실업무가 시작되기 전본사 데이터뱅크국에서 조사한 독자여론에 따르면 독자들은 신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정확 ·공정 · 신뢰성을 지적했는데 이는 독자의 눈이 최고의 심의자라는 것을 증명해준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심의는 제작여건 등 제작진의 어려운 사정이나 입장은 철저히 배제하고 순수한 독자의 입장과 시각에서만 이루어진다. 가령 오전의 원고 초고 검색 과정에서는 완벽한 원고가 출고부서로부터 편집부에 넘겨진 것이 확인됐지만 편집과정에서 지면사정상 중요한 정보가 빠져 실제 지면에서는 궁금증을 남기는 경우도 지적 대상이 된다. 또 심의실이 회사조직구조상으로 사장실 직속기구이지만 심의업무만큼은 독립성을 유지하며 일체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심의대상에는 기사는 물론 사설까지 포함돼 심의에 성역이 없다.
심의실 내부적으로도 이 원칙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심의회의를 전원합의제로 운영하는 것이다. 심의회의에서는 심의위원, 소장기자 모두가 참석해 각자지면에 대한 총평과 개별기사평을 한다. 이것이 끝난 뒤 토론을 거쳐 심의사항을 채택하는데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1차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과정을 거쳐 1차 심의대상이 선정된 뒤 실장이 이를 기초로 최종 심의대상과 경중여부를 결정한다.
본사는 또한 심의실외에 신문학교수, 변호사, 가정주부 등 5명 내외를 사의평가위원으로 6개월 간격으로 위촉해 외부심의서를 매주 받고 있다. 심의실이 기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 외부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심의업무를 보완하려는 의도이다.
이밖에도 심의실은 본사 데이터뱅크국을 통한 연 4회 이상의 독자여론조사 실시와 독자모니터링제도 운영도 계획했으나 심의실 업무증가와 인원부족 등으로 아직은 활발히 실행치 못하고 있다.

V. 맺는 말

심의업무가 시작된 지 1년 3개여월이 지났다. 하루 평균 4~5장 분량의 심의서가 제작됐으니까 엄청난 양이다.
심의업무 초기에 사내반응은 컸다. 잘 지적했다는 격려와 제작여건을 너무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항의에 이르기까지 여러 의견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심의실이 정착돼 「건전한 비판자」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잡았다고 본다. 심의대상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도 심의서를 배부해 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소장기자들 사이에는 심의서를 통해 신문메카니즘과 기사작성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운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또한 심의실에서 평가된 우수기사는 매달 사보에 싣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본사는 매달의 특종·우수·노력상을 시상하고 있는데 이때도 심의실이 시상대상을 사전심사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평가가 주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듯이 심의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당초 제작진과의 인식차이나 제작 여건상의 한계 등을 도외시하는 데서 제작부서와의 마찰이 예상됐으나 다행히 상호보완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심의는 자로 잰 듯 시비를 가려내는 사법기능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심의서가 신문제작의 표본이 되는 교과서라고 여기지도 않는다. 심의서를 토대로 사내에 언론보도에 대한

의견교환과 토론이 활발히 전개되고 자기개혁과 정화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써 언론발전에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본다.